日 호류지 '백제관음상' 도쿄 전시 무산

도쿄국립박물관, 코로나19 이유로 무기한 연기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불교계의 각종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문화재보호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했던 춘계특별전도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해당 특별전에서는 호류지 금당 벽화 원본과 백제관음상 등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성보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는 3월28일 이와 관련 "도쿄박물관은 춘계특별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각국이 이동과 집회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여러 공공기관 역시 무기한 휴관조치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도쿄국립박물관 춘계특별전은 1950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호류지 금당벽화와 백제관음'을 주제로 마련됐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이 1949년 호류지(法隆寺) 금당 해체수리 중 일어난 화재로 금당과 금당벽화가 전소된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담겼다. 당시 벽화는 화재진압에 사용된 고압소방호스의 물로 2차 훼손을 입었고, 별도

문화재보호법 제정 70주년 맞아
호류지 성보 주제 특별전 기획전
전시준비 완료했으나 공개 난항
정부요청으로 임시휴관 지속예정

의 장소로 이운됐던 불상등과 벽화의 일부만이 소실을 면했다. 호류지 사건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듬해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각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도쿄국립박물관과 호류지 측은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비공개로 보존했던 소실된 원래 벽화의 일부를 공개키로 했으며, 소실 전 모사됐던 모사도 모두 한자리에 공개해 원본과 대조하여 볼 수 있는 전시로 기획했다. 또 박물관 측은 지난해 가을, 특별전 기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호류지가 자랑하는 성보 백제관음상을 함께 전시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백제관음상은 23년전 특별전 이후 호류지를 떠나 대중에 공개된 바 없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호류지 금당벽화와 백제관음'을 주제로 마련한 특별전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산됐다. 사진은 언론에 공개된 백제관음상.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이와 관련 도쿄국립박물관 측은 "3월13일부터 특별전이 시작 될 예정이었으며, 이미 백제관음상은 물론 모든 유물과 전시자료를 특별전시관에 전시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특별전은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2월27일부터 3월16일까지 임시휴관이 결정되면서 연기됐으며, 휴관종료 후 정부가 연장휴관을 재차 요청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박물관 측은 "정부의 연장 요청에 정해진 기한이 없어 언제 끝날지 알 수 가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된 특별전에 참가한 '일간 스파'의 츠바키 기자는 "아무도 없는 전시실 한 가운데 덩그러니 백제관음상이 서있었다"며 "어둠 속에서도 당당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불교미술의 걸작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언제 재개될지 모를 특별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日 시코쿠 순례자숙소 폐쇄사례 급증

키쿠야, 18년만에 운영 중단
노령화 · 시설 노후 주 원인



키쿠야 젠콘야도 앞에서 순례자와 이야기하는 카네소씨 부부. 사진출처=토쿠시마 신문

일본에 유서 깊은 불교 순례길인 '시코쿠 88개소 사찰순례길', 통칭 '오헨로 순례길'의 순례자 숙소가 급감하고 있다. 3월20일 시코쿠 지역 언론 '도쿠시마 신문'은 18년 만에 문을 닫은 순례자 숙소 '키쿠야 젠콘야도(善根宿)'를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젠콘야도는 1200년 역사의 오헨로 순례길을 찾는 순례자를 위해 지역 신자들이 운영하는 숙소를 일컫는다. 순례자 가운데 불보살의 화신이 있다고 믿는 시코쿠의 민간신앙에 따라 순례자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선근을 쌓는 일로 여겨져 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쿠시마(德島)현 아난(阿南)시에 소재한 '키쿠야 젠콘야도'는 18년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다. 키쿠야 젠콘야도를 운영해 온 카네소씨 부부가 운영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노령과 거주지 이전이다.

주택설비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카네소씨 부부는 "회사 근처에 88개소 사찰 중 한 곳인 뵤도지(平等寺. 22번)가 있다. 어느 날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가를 헤매던 순례자를 재워준 것이 젠콘야도를 시작한 계기"라며 "지난 18년간 이곳을 이용한 순례자들은 국내외를 포함해 1만 수천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키쿠야 젠콘야도는 약 20평방미터의 단층 조립식 건물. 젠콘야도를 시작한 이래 지인들에게 이부자리나 필요용품을 기부 받고,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추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도보순례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온 키쿠야 젠콘야도엔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방명록이 가득 꽂혀있다.

아내인 카네소 준코(79)씨는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며 "더 이상 이곳을 운영할 수 없지만, 젠콘야도를 운영하는 동안 행복했고 많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삶이 풍성했던 것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코쿠의 젠콘야도들은 지역주민의 신심 혹은 우연한 계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폐쇄 사례가 크게 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자 노령화와 시설 노후화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도쿠시마 현 내의 유명 젠콘야도 중 한 곳은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됐으며, 현 내의 다른 젠콘야도는 운영자의 사망에 따라 자동 폐쇄됐다.

사용자와 주민간의 문제로 폐쇄되는 곳도 적지 않다. 시코쿠에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한 남성은 "많은 젠콘야도들은 지역주민들이 신심으로 세운 시설이다. 그러나 시코쿠 순례길을 단순 도보여행으로 생각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순례자가 아닌 관광객의 입장으로 젠콘야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서 9~11세기 추정 사찰터 발견

1월22일부터 발굴 이어져
고고학자들 "독특한 형태"

방글라데시 쿨나(Khulna)주와 바리살(Barisal)주 당국 고고학부가 1200년 된 불교 사찰 터를 발견,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고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 매체가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지역 당국 고고학부는 쿨나주 제소르(Jessore)구 케쉬브푸르(Kheshbpur) 지역에서 9~11세기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 사찰 터를 발견해 지난 1월 22일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발굴팀의 총 책임자인 아프로자 칸 미타(Afroza Khan Mita)는 "남서부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종류의 구조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심지어 서벵골(Bengal, 원래 인도 북동부의 한 주(州)였으나, 현재 일부는 방글라데시 영토에 속함) 남부 지역에서도 이 같은 발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명한 인도 고고학자 아룬 낙(Arun Nag)도 "이번 발견은 방글라데시 고고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발견된 1200년 전 사찰터. 사진출처=다카트리뷴

'바랏 바야나' (케쉬브루프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 발견 이후 벵갈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두 번째 사원"이라고 '다카트리뷴' 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고고학자 낙은 또 "이 고대 건축물은 방글라데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며 "모든 건축물이 발굴되면 방글라데시의 고고학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고고학자들은 "사찰터의 폐허에서 발견된 특징 중 일부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다른 불교 유적지와는 매우 다른 형식을 나타낸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남아시아 불교 유적 양식과 비슷한지 등을 알아보는 심층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고학부의 보조 연구원인 우르밀라 하스낫(Urmila Hasnat)은 "이 터에서 우리는 무늬가 새겨진 테라코타 벽돌, 점토 항아리 파편 등을 발견했다"며 "이것들에는 연꽃 무늬나 기하학적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회와 모래로 만들어진 스투코(stucco), 항아리 등도 발견됐다"며 "이는 오직 7~11세기 불교 사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덧붙였다.

지역 일간지 '프로톰 알로' (the Prothom Alo)에 따르면, 당초 이 사찰 터는 망고나무 숲이었다. 1988년 폭풍이 몰아쳐 망고나무들이 무너지자 당시 토지 소유자가 바나나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벽돌 장벽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소식은 지역 거주민 사이에서만 회자됐고,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부터 30년 후인 지난해 11월, 현 토지 소유자인 기지아 술타나와 그의 남편 모스타파 모랄은 다시 망고나무를 심기 위해 더 깊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때 거대한 빨간 벽돌 구조물이 드러났고, 지역 당국 고고학부에 신고 돼 마침내 올해 1월 발굴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발굴 작업은 1~3월 내내 진행되다 현재는 우기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다. 지역 당국은 "우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코로나 19 전세계 힘 모아야"

코로나 19 사태 특별 메시지 전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3월 30일 티벳어, 영어, 중국어, 힌디어의 4개국어로 된 공식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무국은 "전세계에서 달라이라마 성하께 거듭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요청한 것에 응해 이번 메시지가 발표됐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인류는 서로 의존하는 존재이기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예방에 힘쓰고, 국가들은 협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별히 코로나 19의 대처를 위해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의료관계자들에게는 "실로 자비행의 실천"이라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더욱 고통 받을 취약계층을 간과하지 말자고도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2월 초, "전염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 따라보살 진언을 염송하자"며 기도를 권장한 바 있다. 한편 달라이라마가 주석하는 인도 다람살라는 전면적인 외출금지령과 함께 거주 외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